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인로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8 충헌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정환 편집: 양재용

영의 눈을 뜨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라!

다음 주일(16일) 종려주일
가족연합예배(2·3부예배 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2. 6.~3. 22.)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 재의 수요일에 선포된 사순절 첫 메시지(마 1:1~17)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 내내 공예배, 집회,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들이 더욱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로 이끌고 있습니다. 절대로 십자가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히 3:14)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고난주간의 첫 날이 종려주일로 불리는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 개성하시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데서 유래합니다.(요 12:13) 한때 종려주일을 '호산나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시 환영하는 무리가 '호산나'라고 외친 데서 유래합니다. 당시 군중은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았습니다.(마 21:8~9) 그러나 이들은 곧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눅 23:21)를 외치며 돌변하였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천 년 전의 그들과 자신을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마 17:5)는 하늘의 음성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량으로 가려진 영의 눈을 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마 20:33) 이 믿음으로 종려주일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3부예배는 가족연합예배(영아·유아·유치·고등부는 자체예배)로 드리는 온 가족이 함께 나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의 길에 믿음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금요일 특별집회 및 제3차 성찬식

주 제 :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요 19:17-20) 일 시 : 3월 21일 (금) 저녁 7시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죽음인가, 생명인가!

(요한복음 3:16)

5:8) 복음이 궁극적으로 지워버리고자 하는 것과 또 복음이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인 멸망과 영생이다.(고전 15:1~4, 17~19) 복음의 위대한 목적은 모든 인간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다.(고전 15:20~22) 예 우리는 멸망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죄 때문이다.(롬 6:23)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사랑한다.(요 3:19) 죽음이나 멸망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창 2:17) 그러므로 멸망은 죽음을 의미한다.(롬 5:12) 멸망과 죽음은 영생과 정반대되는 말이다. 그저 생명의 반대가 아니라 영생의 반대이다. 그래서 성경은 멸망에 대해서 육체적인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뜻한다.(마 25:41, 46) 죄는 영적 문제로서 이에 대한 선고는 영적인 것과 아울러 하나님께 내리시는 법적 행사다. 그리하여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현존에서 끊어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안에서 영원토록 거할 수밖에 없다.(눅 16:22~24)

성경은 지옥을 그림처럼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지옥의 타오르는 불길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지옥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형벌이 지옥이다. 그러므로 지옥은 구세주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진 곳이다.(살후 1:8~9) 죄를 범한 자들만이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 따라서 지옥은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곳이다.(히 10:26~27, 30) 신약성경에서 지옥에 관하여 가장 많이 말씀한 사람은 예수님이시다. 지옥은 천국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곳이다.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잠깐의 순간이 있을지라

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은 항상 있지 않은가? 이것이 곧 멸망이 주는 의미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이곳으로부터 건져 내시기 위하여 오셨다.

요한복음에는 '영원'이란 뜻의 형용사가 17번씩이나 쓰였다. 그리고 이 형용사는 명사인 '생명'과 함께 쓰였다. 삶의 가치를 말해 주는 것이다.(요 17:2~3) 또 이는 생명의 기간을 말해 주기도 한다. 새로 태어난 때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시작된다.(고후 5:17) 이러한 삶이야말로 천국의 삶을 아주 작으나마 맛보는 것이다.(빌 4:4~7; 요 14:27) 천국은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영원토록 살 곳이다. 천국은 죄가 없고, 고난이 없는 곳이다.(제 21:2~4)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대할 것이며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과 동등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요일 3:2) 그와 함께 생각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고 그가 택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그가 기뻐하시는 것 안에서 우리도 참된 기쁨을 찾게 된다.(요 8:47)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또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요 8:51)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실을 알게 하신다.

복음의 주제가 크고, 복음의 선물이 크고, 복음의 성취도 크기 때문에 죄인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롬 1:16~17) 복음이 전파되는 그 조건과 환경 자체는 기쁨이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 오늘날 지옥에 관한 설교는 조롱거리로 여겨지거나 우스꽝스럽게 들려진다. 그러나 이처럼 지옥이 없는 것처럼 논 감아 버리거나 알면서도 일을 다른 채 조종하고 있는 것은 죄 아래 있는 인류에게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복음은 영원을 알리는 축복과 저주를 호소하고 있다. 복음만이 이 무서운 진리에 대한 대답이다. 복음은 인간이 멸망할 필요가 없음을 선언한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지옥을 정복하셨기 때문이다.(고전 15:55~57) 죄와 사망과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요 3:16) 아멘.

HOSANNA TO THE SON OF DAVID

⁽¹⁴⁾And the blind and the lame came to Him in the temple, and He healed them. ⁽¹⁵⁾But when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saw the wonderful things that He had done, and the children who were shouting in the temple "Hosanna to the Son of David," they became indignant ⁽¹⁶⁾and said to Him, "Do You hear what these children are saying?" And Jesus said to them, "Yes; have you never read, 'OUT OF THE MOUTH OF INFANTS AND NURSING BABIES YOU HAVE PREPARED PRAISE FOR YOURSELF'?" ⁽¹⁷⁾And He left them and went out of the city to Bethany, and spent the night there.(Matthew 21:14~17)

When you read from the beginning of Matthew 21 up to and including today's Bible verses, you encounter scenes that are like the climax of a fantastical action adventure movie. As Jesus approaches Jerusalem, He sends two disciples into a neighboring village with instructions to find a special donkey with her colt. He tells His disciples that as soon as they enter the village they will see the animals and are to bring them to Him. If anyone asks them any questions, they are to say, "The Lord has need of them," and the owner will immediately let them go.(v. 3) The disciples follow Jesus instructions and find everything exactly as He foretold. They bring Him the donkey and the colt, lay their coats on them, and Jesus begins His descent into Jerusalem just as Zechariah prophesied hundreds of years beforehand, "Rejoice greatly, O daughter of Zion! Shout in triumph, O daughter of Jerusalem! Behold, your king is coming to you; He is just and endowed with salvation, Humble, and mounted on a donkey, Even on a colt, the foal of a donkey,"(Zech. 9:9) The crowds going ahead of Him, and those who followed, all shouted, "Hosanna to the Son of David;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v. 9)

As if this great scene isn't enough, when Jesus gets to the Jerusalem Temple, where everyone is still praising Him and His disciples are expecting His inauguration as king to take place, instead of quietly entering He begins a rampage. He throws out everyone who was buying and selling things, and "overturned the tables for the moneychangers and the seats of those who were selling doves,"(v. 12) He casts out all the terrible things, and tells the merchants, "It is written,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but you are making it a robbers' den,"(v. 13) In the midst of His righteous anger, the blind and lame came to Him and He healed them. Under normal conditions, the blind and lame could never enter the Temple, but Jesus allowed everyone inside. When people get very, very angry and someone approaches them in the midst of their outburst, they usually tell them to go away for now, but Jesus remained calm and healed those who approached Him. The temple officials, chief priests and scribes, who saw the wonderful things He had done and heard the children singing to Him in the Temple, "Hosanna to the Son of David," became indignant. They asked Him, "Do You hear what these children are saying?"(v.16) Jesus reminded them of Psalms 8:2, "From the mouth of infants and nursing babes You have established strength because of Your adversaries, to make the enemy and the revengeful cease."

These amazingly wonderful and strange scenes reveal the spiritual salvation that Jesus Christ offers. He welcomed the poor people into the Temple. The blind and the lame came to the right place, God's house, but were ignored by the church officials. The real Messiah, Jesus Christ, opened the doors for them. Whereas the church officials gave their time and energy to the rich, Jesus gave of Himself to sinners. He is the true shepherd of all God's children. Isaiah prophesied that the Messiah would

give sight to the blind(Is. 29:18), and Jesus encouraged John the Baptist by reminding him of the miracles He was doing, "the blind receive sight and the lame walk, the lepers are cleansed and the deaf hear, the dead are raised up, and the poor have the gospel preached to them."(Mt. 11:5) Everything happened exactly as foretold.

A lot of people stumble over Jesus, but those who come to Him in faith are never rejected. He did not push away the blind or lame, even though he was busy cleansing God's house. He was soft, gracious, and merciful to them. His beautiful hand touched them and healed them because He was the true Son of David. David came into Jerusalem with his army using human weapons. 2 Samuel 5:6~8 says, "Now the king and his men went to Jerusalem against the Jebusites, the inhabitants of the land, and they said to David, 'You shall not come in here, but the blind and lame will turn you away'; thinking, 'David cannot enter here.' Nevertheless, David captured the stronghold of Zion, that is the city of David. David said on that day, 'Whoever would strike the Jebusites, let him reach the lame and the blind, who are hated by David's soul, through the water tunnel.' Therefore they say, 'The blind or the lame shall not come into the house.'" Jesus entered Jerusalem alone using spiritual weapons. Jesus is the Son of David, but He is also the King of all king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great.

The little children sang praise to Jesus and the church officials were extremely bothered by it. Today's churches also seem to enjoy insulting others more than praising the Lord. We truly need to learn to sing, "Hosanna to the Son of David,"(v. 15) with pure and simple hearts, like the children in the Temple. They sang with their mouths and sincerely praised the Messiah, while God's servants, the high priests and scribes, chose not to praise the Lord but to get angry over others doing so. They did not understand the children. Jesus said, "But to what shall I compare this generation? It is like children sitting in the market places, who call out to the other children, and say, 'We played the flute for you, and you did not dance; we sang a dirge, and you did not mourn.'"(Mt. 11:16~17) No matter which way the truth is revealed, the majority are not pleased. God's servants did not understand the Scriptures. They never learned this spiritual song. Jesus understood it well, "I praise You, Father, Lord of heaven and earth, that You have hidden these things from the wise and intelligent and have revealed them to infants."(Mt. 11:25) Unfortunately, most of the prestigious religious organizations of today stand totally opposite of Messiah. The cleverness of theologians can spoil things. Simple trust is hard for many. The children in the Temple sang the truth.

Today is Palm Sunday and I want everyone here to know that Jesus welcomes you. He will heal you. He will save you. He will give you spiritual life. Let us learn to sing the spiritual song, "Hosanna to the Son of David," so that we can truly praise our Savior and Lord, Jesus Christ. Amen.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¹⁾“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²⁾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³⁾“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들

은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⁴⁾“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마태복음 21:14~17)



김성관 목사

마태복음 21장의 첫 절부터 본문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마치 환상적인 액션영화의 클라이맥스와 같은 장면을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이웃 마을로 보내시며 나귀들과 함께 매여 있는 특별한 나귀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를 찾으면 자신에게로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 때 만일 나귀 주인이 “왜 나귀를 데려 가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3절)라고 말하면 나귀의 주인은 나귀를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고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나귀와 나귀새끼를 데려 와 그 위에 자신들의 겹옷을 엮었습니다. 스카라 선지가 사백 년 전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속 9:9) 군중이 예수님 앞에서 행하고, 뒤에서 따르던 사람들은 크게 소리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9절)

성전에 들어가신 다윗의 자손

이 놀라운 광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는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도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왕으로 취임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은 조용히 성전에 들어가서 아니하시고 성전을 청결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엮으십니다.(12절)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금지하시며 매매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니라”(13절) 이렇게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시는 도중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실 보봉의 경우라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은 결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 있는 중에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오면 “자극은 그냥 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시며 자신에게 나아온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성전 안에서 어린아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성전의 관리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매우 화를 내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16절) 이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편 8:2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구원의 문이신 다윗의 자손

이처럼 매우 놀랍고 기이한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 구원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셨습니다. 성전 관리들에게서 배척당했던 맹인과 저는 자들이 당면한 자신들이 있어야 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성전 관리들은 그들의 시간과 힘을 부자들을 위해 사용했던 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맹인이 볼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이사가 선지가 예언했습니다.(사 29:18)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요한에게 상기시켜 주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리”(마 11:5) 예언대로 모든 것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죄인들을 맞아 주시는 다윗의 자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맞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청결케 하시는 바른 와중에도 맹인과 저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드럽게 대하셨습니다.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손이 그들을 어루만지셨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다윗의 자손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만든 무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엘하 5:6-8은 말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루스 사람을 치러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루스 사람을 치거든 물 걷는 데로 옮겨가자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 권세를 가지시고 예루살렘에 홀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것은 매우 큰 영적 차이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린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고, 이것은 성전의 관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역시 주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15절)라고 노래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순진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찬양했던 어린아들처럼 말입니다. 어린아들은 메시아를 진실되게 찬양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종들이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 대신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대에 얹어 잤 더무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프게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하와 같도다”(마 11:16-17)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진리가 드러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보였던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 영적 노래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마 11:25)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종교적 특권을 가진 기관들은 메시아를 철저히 대적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지식이나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단순하게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아들은 단순히 성경에서 진리를 노래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여러분을 반갑게 맞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영적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

2008년 제1차 청지기훈련을 통한 은혜

“교회의 방패와 상급”

(창세기 15:1)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엎드려 회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참 자유 허락하소서



앞서 가시는 주님!

이번 청지기훈련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가장 큰 은혜와 감격의 말씀은 ‘앞서 가시는 주님’이었다. 태초부터 교회를 계획하셨고 준비하신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잔인한 바르의 땅에 있을 때나 광야 길을 걸었을 때나 언제나 신실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앞서 가셔서 바다를 가르고, 만사를 내려 주시고, 생수를 부어 주시고, 구름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다. 기록과 2천 년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신 주님이 교회의 방패와 상급이 되실 수 있는가? 해답은 분명하다. 주님이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앞서 가신 주님이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돌보시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앞날이 평탄대로일지, 낮은 언덕을 오를지, 험한 계곡을 걸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또한 심한 풍랑에 해매게 될지, 타오르는 불가마를 거쳐야 할지 또한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교회의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는 사실이다. 마지막 모든 말씀을 마치시며 위임목사님은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물으셨다. “오늘 이 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할 분은 안 계십니까?” 나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 “주님, 내가 주의 십자가 군병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주의 손에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감사의 밤이었다.

유승렬(안수집사, 19교구)

마음의 회복을 소망하며

이번 제1차 청지기훈련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었다. 그동안 교회와 멀어졌던 남편과 아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매사에 부정적이던 남편과 아들이 이번에는 순순히 응해 주었다. ‘교회의 방패와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위임목사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다. 특히 그동안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던 남편과 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였다. 말씀을 듣는 중에 간간히 아들의 표정을 살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진지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는 다소 낯설었을 것 같은 말들에 대해서 남편과 아들에게 하나 둘씩 물어 보았다. 대학생인 아들은 자신의 앞날에 대한 해답을 조금 얻었는지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또 일선에서 먼 곳으로 다닌다고 무덤가렸지만 청지기훈련 때 별 말 없이 응해주시고 고맙다. 한때 집사직까지 받았으나 주님과 멀어진 남편이 이번 청지기훈련으로 마음 문이 열려 계속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기도했다.

김정희(권사, 17교구)

예수님 손에 붙잡히고 싶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 14:27)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남편이 걱정되어 항상 조바심내며 사는 나에게 포근하고 따뜻한 첫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라”(사 52:12) 주님의 말씀이 계속될수록 마음의 감동이 잔잔하게 일었다. 교회 앞에서 살 때에는 모임이다 뭐다 하면서 교회를 전성으로 다녔었다. 집에서 교회 식구들을 만나면 요리조리 피했다니며 숨기에만 바빴다.

지난 12월에 경기도 광주시 오포로 이사하면서 새 구역장님을 만났다. 차를 집 앞에 대 놓고 전화를 하더니 교회에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구역장님 손에 붙잡혀 억지로 새벽기도회에 가고 기도원에도 가는 사이, 어느 순간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직 젊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정말 친해지고 싶다. 우리 가족 모두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품 안에서 살고 싶다.

유헌운(성도, 8교구)

영적 교만을 회개하며

이번 청지기훈련은 그저 주님 앞에 회소하고 부끄러운 마음밖에는 고백할 게 없었다. 2월 한 달은 많은 수고와 열심을 갖고 매우 분주하게 보냈다. 매일 나의 발걸음은 주의 전으로 향하고 있지만 무너지고, 애용함이 없는 빈 마음으로 달려 나오는 내 자신을 보게 하였다. 내 열심만을 갖고 주의 일을 감당하려 했던 나는 어느새 영적 교만함으로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청지기훈련의 말씀을 듣고자 이른 시간부터 주의 성령을 가득 채운 성도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가슴을 치며 회개했는지 모른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음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하였다. 주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율법으로 가득찬 내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럽던지! 하지만 지극히 작고 교만한 죄인이고 무익한 팔이지만 지금도 교회의 방패 되시고 상급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부족한 나를 청지기와 일꾼으로 써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지막 때에 믿는 자로 부끄럼 없이 주 앞에 서기를 원한다.

안정희(집사, 6교구)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상급이시구나!’

오늘은 청지기훈련이 있는 날이다.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까 생각하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서 가서 말씀을 들어야지.’ 발걸음을 재촉해 교회에 도착해 보니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많은 성도님들이 도착해 있었다. 안내를 맡은 집사님들로 부터 먼저 목사님, 전도사님, 성도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잔치에 참석하신 순도담계 활기가 넘쳐 보였다. 우리 총현교회 위에 총현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무엇보다도 연약한 나의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은 주를 향한 열심과 기대와 소망이 언제나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언제나 모든 예배시간마다 오 늘처럼 자리가 차고 넘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무척이나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나에게 한 가지 커다란 고민이 생겼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나?”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말씀처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증거하며 살아야겠노라고 결심했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 삶과 죽음을 대한 문제보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보다 더 가치있고 소중한 것은 없다고 여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삶에 집중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가지 삶에 대한 열려와 살기에 대한 두려움, 나의 실수로 인한 크고 작은 일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기에 오늘의 말씀처럼 교회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아,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싶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상급이시구나!’ 목사님께서 다른 어떤 구제적이고 특별한 상급을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나는 갑자기 정신이 반짝 들었다. 바로 그랬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심을 나는 잊고 있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셨다고 약속하시며 나를 부르시고 계셨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믿음의 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래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야!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엎드려 회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참 자유 허락하소서.”

홍기욱(집사, 18교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22일은 청지기훈련이 있는 날, 나같이 건강증 심한 사람을 위한 수많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런데 '천국잔치에 누구를 초대하지?' 매년 거절만 하던 마네 딸에게 말을 꺼냈다. 대답은 "Ok~!" 불교집안인 우리 가족을 위해 6년 동안 기도의 동역자들과 간절히 기도했지만, 남편은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교대학까지 다녔다. 그러나 위암 말기라는 기이한 상황을 통해 남편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가 천국에 간 후 홀로 외로이 고독하게 다녔지만 가족을 인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 큰 자녀들 앞에서 "예수" 소리는 꺼내지도 말라는 시어머니의 엄포에 나는 어쩔줄 바를 몰랐다. "주님, 저 너무 힘들거든요. 주님께서 어떻게 좀 도와 주세요." 나는 그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 우리 가족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새벽, 어머니 방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어머니의 기도소리를 듣게 되었다. 또한 기도제목이 있어야만 교회에 나오면 아들이 요즘은 주일을 지키고, 막내까지 순순히 교회에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찬란한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된 청지기훈련이라 더욱 기대되고 기다려졌다. 목사님의 간절한 메시지가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 주셨지만 그들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불만해했다. 나는 그 모습을 비난하면서 또 막상 내가 똑같은 것을 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그동안 나는 관아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삶 속에서 가치관을 찾았고 편리한 종교관을 가졌으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를 좋아했다. 내가 불편하던 주님의 말씀도 외면하였다. 이처럼 당차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뻔뻔하고도 실망도 많이 시켜드렸다. 하지만 예수님은 별레만도 못한 죄인을 사랑하사 모난 돌을 늘 다듬어 가시며 참아 주셨으며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미지잡사, 4교구)

말씀 안에서 승리

먼저 **총회교회를 사랑해서** 이처럼 귀한 청지기훈련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시다.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앗다, 정말 그렇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말씀처럼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그 치열한 세상에서의 삶이 목적이 되어 이 세상과 타협하며 타협하면서 상처도 입지 않고 살아가는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교회마다 적어도 이렇듯 믿음의 길을 걷고자 세상의 가혹한 것들에 현혹되어, 어떤 것이 본질인지조차 잊어버리고, 이것들을 향해 뛰어다니면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고 주님을 외면하며 주님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로부터 속아 살았는지 모릅니다. 속는 것조차도 모르고 주님께 말기만 한다고 기도하며 살아 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함께 허우적거리며 여전히 씨름하며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억지로 안 되는 것이 순리야.'라고 가져다 붙이고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속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을 알고 이것만 이기며 살려 해주세요. 하지만 말씀은 좁은 길을 걸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장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무장하며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고, 아직 작금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 낱마다 확인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써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삼급이다." 이제는 세상 끝 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일은 다름날 보다 더 우실 것 같습니다. 첫 말씀이 선포될 때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이재숙집사, 21교구)

앞서 행하시는 주님

오후 4시, 마음이 바빠진다. 오늘은 제1차 청지기훈련이 있는 날이다. 고수동까지 막히지 않기를 바라며 시동을 걸었다. 내가 지금 근무하는 곳은 동탄이다. 새벽 출근길은 30분 정도 걸리지만 퇴근길은 정당할 수 없는 곳이다. 승 가쁘게 교회에 도착하니 오후 6시 40분, 그런데도 만나지 않다. 본래에 들어서니 말씀을 사모하는 열기로 뜨거웠다. 위임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벌써 목이 메인다. 오늘은 다름날 보다 더 우실 것 같았다. 첫 말씀이 선포될 때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작년에 안수집사 직분을 주셨을 때가 두렵다. 내 생애에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다. "목사님, 제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현상이 율산이네요. 어떻게 해결 할 교육 받을 수 있었어요?" 이걸 불가능하다고요. 목사님의 대답은 "기도합니다."였다. 그 후 주님은 교회에서 10분 거리의 현상보다 나를 불러 주었다. 그러나 어찌 감히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의 열정을 사모하는 주님은 정말 치리하시다. 올해 초 새로운 현상이 없어 두 달째 본사 근무를 했다. 사장님이 고사날짜를 돈 주고 받아왔다고 한다. 그 날짜에 맞추어 떡을 주문하고, 돼지머리에 온갖 과일을 준비하는 직원

세상과 섞이지 않은 주님의 교회로

젊음이 있고 미래가 있기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는 청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막연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가장 많이 안고 살아가는 때인 것 같다.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두려움을 피부로 느끼지 못할 뿐 나의 내면에는 나를 옥죄어는 두려움의 강한 바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불안과 열려 속에서 이런 청지기 때 주신 주님의 음성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의 능력을 실감하는 시간이었다.

나함은 아브라함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삼급이니라"는 말씀을 주셨다. 나 역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말씀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경청하였던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가진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두려움없이 살 수 있는 참 능력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었다. 예수님이 특별히 나를 위해 배후진 은혜의 잔치가 아니었는가 한다.

무엇보다 말씀과 화합하며 살면서 내 안위와 내 미래가 보장되기를 바랐던 내 신앙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결코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길 소망하게 되었다. 안정된 직장, 많은 연봉, 남이 인정해 주는 실력이 나를 두렵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극히 큰 방패요 삼급이 되신 예수님 편에서 서서 세상과 싸우는 삶만이 두려움을 극복하며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는 진정한 축복임을 깨우쳐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청년이 되길 소망한다.

(유병규(청년1부))

성령의 단비

"엄마- 청진(지)기훈련 빨리 가요-", "무슨 훈련?" "청진(지)기훈련이요. 탐험놀이도 해요? 재밌겠다. 근데 얼마, 청진(지)기훈련을 병원에서 안하고도 교회에서 해요?" 몇 년전 처음으로 청지기훈련에 참석했던 개구쟁이 막내남이 누나를 대하네. 그 후로 몇 해가 지났다. 청지기훈련이란 주께서 주신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하는 훈련임을 이제 막내는 안다. 신나는 세상놀이기가 아니기에 투정 부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받아야 할 훈련임을 알고, 자신도 함께 기쁘게 원하는 아이로 성장했다. 이 모든 일은 말씀을 통한 주님의 역사이다. 이 은혜를 알기에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했다. 그 소망이 간절했기에 그리스도 앞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신앙생활에 우선 순위를 초점을 맞추려 애를 썼다.

그러나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할수록 세상은 점점 더 힘들게 다가왔다. "주님! 그래도 사랑해요."라며 이겨 내려 했지만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다. 마음은 혼란스럽고 몸은 지쳐갔다.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셨고, 새 힘을 주셨다. 어김없이 이번 청지기훈련에도 말씀을 통해 주님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나는 또 다시 회개하였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지 못하고 내 의지대로 애를 썼던 지난 내 모습을 회개하였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심은 주님의 삼급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대대한 믿음으로 시몬과 같은 교회를 세우기에 일에 전심전력해야 할 새로운 사명을 주셨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삼급이니라"는 말씀이 나의 마음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청지기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늦은 겨울비가 내렸다. 유리창에 맺어지는 빗방울이 성령의 단비 같이 예뻐 보였다.

(전우현(집사, 24교구))

들의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무슨 일이나고 동료에게 물으니, "매번 하는 일인데 모르냐?"고 핀잔이다. "그런데 절도 해야 돼?"라고 내기 묻자, 동료는 "그럼!"이라고 단언하듯 대답한다. "안 하면?", "사정난한테 미운 털 박히는 거지." 이제껏 현장에만 있어서 몰랐던 사실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회사를 옮기기로 마음을 굳혔다. 아내는 "당신 나이가 몇인데 회사를 그만 두느냐?"며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그 후 회사에 그만 두겠다고 한 날짜보다 한 달이나 앞서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그것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말이다. 위임목사님의 말씀이 컸기를 느낀다. 주위에 있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우리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삼급이니라" 갑자기 지나온 날들을 속으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며 보초해 주셨는지, 또 나를 잊고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셨는지…… 한숨을 부르는데 목이 메고 눈물이 난다. '나도 위임목사님을 뵈었나?' 세상 것에 미련을 버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며 예수님을 따라가리라 다짐하며 십자가를 붙든다.

(김진석(안수집사, 1교구))

마태복을 24장에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은 끔찍한 재난과 세상의 유혹으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셨다. 또한 종말의 때에는 멸망의 가운데서 거룩한 곳에 설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셨다. (마 24:15)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 24:44)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을 25장에서 열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아주 쉽게 말씀하셨다. 비유의 말씀을 끝낸 후(마 26:1)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마 26:2)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수난을 예고하셨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예수님은 매우 심각하게 말씀하셨건만 제자들은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8. 3. 5.)

주여! 내인이까!

(마태복을 26:17~25)



이제 무교절 첫날이 되어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였다. (마 26:17) 이때 예수님은 이전에 하신대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순종하였다. (마 26:18; 막 14:13-14) 제자들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가정, 직업 등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다. 예수님의 말씀, 기적 등 놀라운 일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보았다. 특히 제자들 중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기까지 했다. (마 17:3) 이보다 더 놀라운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마 17:5)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심령에 각인하였다. (마 17:3) 이처럼 놀라운 체험을 하였던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마 26:21) 3년이나 예수님 곁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였다. 그런데 이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말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이었다. 제자들의 현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의 훈련을 받고 도야를 받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눈을 떼면 즉시로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그러니 잠시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말자. 절대로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자.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찬 375장)

하나님의 아들의 예언이다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예언이다. 이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며 대답하였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마 26:22) 이 구절의 원문은 "나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주님!"이다. 제자들은 한평생 예수님께 자신을 절대로 배신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마 26:23) 이 구절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살펴보자. 어떠한가? 가슴이 철렁하지 않는가? 마

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곁에서 봉사한 사람은 가롯 유다였다.

마태는 실형한다(마가복음에는 없다) 가롯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다른 제자들보다 탁발하였기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많은 일을 저질렀다. 배신자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른 제자들은 당황하여 대답하였지만, 그는 "람비에 나는 아니지요" (마 26:25)라고 말할 정도로 차분했으며 예의를 갖추어 대답했다. 이처럼 그 누가 보아도 가롯 유다는 신앙의 모델로서 충분한 신실함과 탁발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은 어떠한가? 만찬 전에 그는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았다. (마 26:14-16) 그럼에도 그는 아무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예수님도 가롯 유다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를 야단치거나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 그저 "네가 말하였도다"라는 말씀뿐이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롯 유다는 회개했어야 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롯 유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았다. 자신의 판단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종교지도자들에게 갔을 때에도 그는 자신이 책임지고 했을 뿐 배드로와 같은 참 회개는 없었다. (마 27:3-5)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그의 행동이 멋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그에게 남은 것은 영벌뿐이다. 그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을 잊지 말자. "그 사람은 자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세계를 낳았었느니라" (마 26:24)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가 된다는 것이 세상의 축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만큼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쉽다. 가롯 유다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배신하였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는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히자 모두 흩어졌다. 축출되라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큰 소리 치면 수재자 배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다. 이것이 3년간이나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이 받았던 훈련의 강도를 생각했을 때 우리도 제자들보다 더 나은 행동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하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마 25:41, 46)

지금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나? 예수님이 나의 삶에 제사야 한다. 나의 삶의 초점이 오직 십자가에 있어야 한다. 생각한 것만 할까. 매순간 무의식 중에라도 십자가를 볼수록 기도하자. (마 6:13)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메시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다. "회개이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자. "나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따라 갈보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자.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뒤 위해 항상 비신네." (찬 290장) 아멘.

마가복을 강해 ⑧

* 마추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알세불이 지폈다(3:22-30)

이제 구원의 사역은 실로 놀라웠다.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서 꺾여 못하고 쫓겨났다. 그러나 바알세불이 지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했다. 그런데 그와 바알세불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부정하였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귀신의 힘을 이용한 사탄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정죄하였다. (막 3:22) 종교지도자들의 이러한 정죄는 영향력이 있었다. 그들이 누구인가? 평생 말씀을 연구하며 건전한 설교를 주도하는 종교인들이 아닌가? 따라서 당연히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믿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친 것으로 생각하였다. (요 8:48, 10:20) 이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시며 바유로 말씀하셨다. (막 3:23~26; 마 12:25-26)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극히 당연한 능력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믿지 못하였다. (요 10:36)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예수님의 권능도 믿을 수 있다. (요 8:49, 10:37~38)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기 않을 때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요 3:18)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온전히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을 통해서도 믿었다. 여기에는 종교지도자들이 영향이 컸다.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시골 출신의 청년으로부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에 종교지도자들은 끊임 없이 예수님 사역에 물음표를 던졌다. (눅 7:34) 예수님 말씀에는 무리 속에 섞여 시시때때로 사람들의 권위에 도전하였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트렸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아들"을 외치며 종교인들의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속마음 이들은 아랑곳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심지어 자신들을 학대하던 로마정권과도 손을 잡으려 했다.

동일한 속심이다 오늘날 종교지도자들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다. 복음이 사라진 축복으로 가득찬 믿음을 외치고 있으며 성도들도 함께 따르고 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속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매순간 깨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히 10:29) 예수님은 마귀의 힘을 이용해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권세를 물려서기 위해서 오셨다. (히 2:14-15)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홍지자라다 권세를 물려서기 위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 2:15)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을 뿐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곧 하나님의 사역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막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막는 것과 똑같다. 이같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경고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막 3:28~29)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를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십자가의 십자가보다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특히 온 신앙연호으로 만민이 자신만의 종교관과 명예와 영광을 얻기 줄 공로, 자랑에만 관심을 갖게 만든다. 복음이 바로 눈앞에 있지만 "바알세불이다. 미쳤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평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수용해야 타협해야 했다"고 말한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 뿐이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렘 13:38) "17"은 죽음과 정죄는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의 기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막 3:36, 28) 사탄을 통한 속삭임은 계속해서 산들풍을 불쑥 날린다.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짓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 (히 3:12) 예수님이 대담하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 아멘.

그래, 난 빛진 자야!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좋아하시는 일과 또한 화를 내시면서까지 싫어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상명령으로 주실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고 계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인데, 왕기도 없고 기도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등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국내 전도조차도 못하던 내가 과연 외국에까지 나가서 해야 하는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 까? 얼굴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는 그들에게 나사야 하는 그런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은 어려울 것이라고 단정하기를 여러 번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족한 죄인인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선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 난 빛진 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배풀어 주신 보혈의 크나 큰 은혜를 생각해야지. 매일 증인 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도 못하면서 불과 며칠 간의 부르심인데 단기선교에 한번 순종해 보자. 예수님은 내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잖아."

주님의 부르심에 나지막한 음성으로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떠나신 나에게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선교를 하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 미리 결성된 선교팀에 나를 그저 한 사람의 팀원으로 끼워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었다. 이번 사역에서는 차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오지 마을까지 가서 문명 생활과는 거리가 멀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셨다. 복음을 영접하는 그들의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할 때 나의 심장이 터질 것처럼 뜨거워져서 차마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어려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 눈앞에는 체감 온도 섭씨 35도의 더위에도 미친 듯이 복음을 들고 총총걸음으로 뛰다시피 다니며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던 팀원들과 뒤통수와 현자인들을 끌어안고 마치 가족이라도 만난 것처럼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던 팀원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그동안 뜨겁지 못했고 게을렀던 나를 회개게 하셨다.

인연석(안수집사, 18교구)

마르지 않았던 눈물

그 땅에 나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굳게 믿고 확신하면서 나아갔다. 전도지를 줄 수 없었기에 더욱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슬한 방해와 시련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도 있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으로 물리치며 나아갔다. 찬양을 할 때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와 회개로써 주님께만 매달리게 하셨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소서!" 경찰의 눈을 피해 1:1 전도와 축호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린 이곳에 머지않아 우리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반면에 마음 편안히 전도할 수 없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곳에도 언젠가 십자가가 세워지고 찬양 소리가 온 사방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선교지에서 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 땅과 영혼들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이다.

이호석(집사, 할렐루야오시기 1팀)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3월 6일(목)~3월 14일(금)	21교구 1지역	이영석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사역	인도자
360	순윤아	11	대학부	이성자(11)
361	주혜선	11	대학부	김동휘(11)
362	최인옥	17	대학부	박영민(2)
363	박상원	21	대학부	박영민(2)
364	변정혜	14	대학부	손민진(9)
365	김종희	23	청년2부	
366	한신현	20	청년2부	이정미(3)
367	그레이스	22	청년1부	이주성(5)
368	손진영	24	청년1부	임광선(24)
369	김동훈	17	청년2부	유병렬(17)
370	박은수	22	청년3부	김영준(23)
371	황정민	15	청년1부	김정우(8)
372	최규상	23	대학부	고정준(2)
373	정수미	2	청년1부	고정준(2)
374	황은하	4	청년1부	함윤서(4)
375	구희선	9	청년1부	김일식(3)
376	나도연	13	청년1부	이상배(13)
377	한정희	13	청년2부	이상배(13)
378	신은영	7	청년1부	
379	최은영	17	대학부	나영실(17)
380	신지은	17	대학부	나영실(17)
381	황의태	6	청년2부	황의민(12)
382	최재호	2	청년2부	이미향(7)
383	장지민	18	청년2부	이미향(7)
384	정준성	21	청년1부	정신숙(9)
385	정근구	21	청년3부	전은선(18)
386	이규성	21	대학부	김계자(11)
387	박민희	1	청년1부	조종현(13)
388	노희식	14	청년2부	김순광(14)
389	이복희	14	청년2부	김민익(14)
390	김강길	4	청년2부	송한진(7)
391	김학진	18	청년1부	김종일(18)
392	박민진	13	청년1부	최희자(7)
393	오승현	8	청년1부	정유선(20)
394	장지혜	9	대학부	정승환(5)
395	신동욱	7	대학부	

* 선교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천국일꾼 양성을 위한 총현장학회



김상중(장로, 총현장학회 부회장)

총현장학회에서는 일 년에 두 차례 십자가의 은총으로 충만한 천국일꾼들을 선발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기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도 전·후반기를 통하여 400여 명의 장학생들에게 약 5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2008년도에 전반기 장학생선발을 이미 마쳤고, 하반기에도 장학생을 선발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혼탁한 이대에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희생과 꺾임과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고후 6:4) 그래서 총현장학회를 선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학생들이 인간적인 계신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 전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총현장학생 선발은 단순히 외적 기준만 보고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참 신앙을 점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본 교회에 등록한 지 2년이

지난 교인이어야 합니다. 본 교회학교에 교적을 두고 출석하는 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신학대학원생으로서 공제에 출석 및 헌금생활을 잘하고 교회 각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해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가장 중시하는 선별기준은 '이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복음으로 세워질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항목입니다.(마 16:18,24) 그런데 이 같은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총현장학회의 일꾼들도 회성을 가진 죄인인지라 부족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일꾼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총현장학생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서가 아닌,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빛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단기선교사로서의 사명도 온전히 감당하고 있음을 보며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총현장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앞으로 대배כים 같은 주의 천사(시 110:3)들이 거룩한 웃음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께 나아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에 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하기를 힘쓰라"(딤후 2:15)

